

## 노어 자음의 음성학적 특성 전 명 선

노어는 자음이 풍부한 언어이다. 자음 음소가 34개에 달하므로 한국어나 영어 등의 다른 언어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숫자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노어 자음의 음성학적 특이성과 이것이 한국인에게 주는 노어 발음 학습상의 문제점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편의상 우선 자음의 음소 표를 제시한다.

< 노어 자음 표 >

												혀						
		입					술					혀 끝		아 바 다		뒤 바 다		
		양입술		이입술		어	이잇몸		입		선	장	입	선	장	입	선	장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경	연							
장 애 음	파열음	무성	p	pʲ			t	tʲ									k	
		유성	b	bʲ			ɗ	ɗʲ										g
	파찰음	무성					ts					tʃʲ						
		유성																
마찰음	무성			f	fʲ	s	sʲ	s	sʲ								x	
	유성			v	vʲ	z	zʲ											
공 명 음														j				
		콧소리	m	mʲ			n	nʲ										
		입소리					l	lʲ										
	떨음								r	rʲ								

1. 연 자음 과 경 자음. 노어는 구개음화된 자음(연자음)의 계열이 특이하다. 노어에서는 자음이 구개음화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낱말의 뜻이 분화된다.

보기)	brat	"형제"	bratj	"잡다"
	nof	"새롭다"	nofj	"치녀지"
	mol	"뚝"	molj	"좁"
	mel	"분필"	melj	"여울"

이 연자음 계열의 자음들의 존재가 노어의 자음음소의 수를 유달리 많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한국어에서도 구개음화된 자음이 쓰이나, 음소로서 존재하는 노어의 경우와는 달리, 구개음화라는 음성적 차원의 변화를 거쳐서 생겨나는 변이음으로써이다. 따라서 뜻의 분화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즉, 한국어에서 치조파열음  $\text{t} \text{ } \text{t}^{\text{h}}$  과 비음  $\text{t}^{\text{h}}$  은 /i/ 모음과 반모음 /j/ 앞에서  $\text{t} \text{ } \text{t}^{\text{h}}$  과 구개음화된 [tj] 으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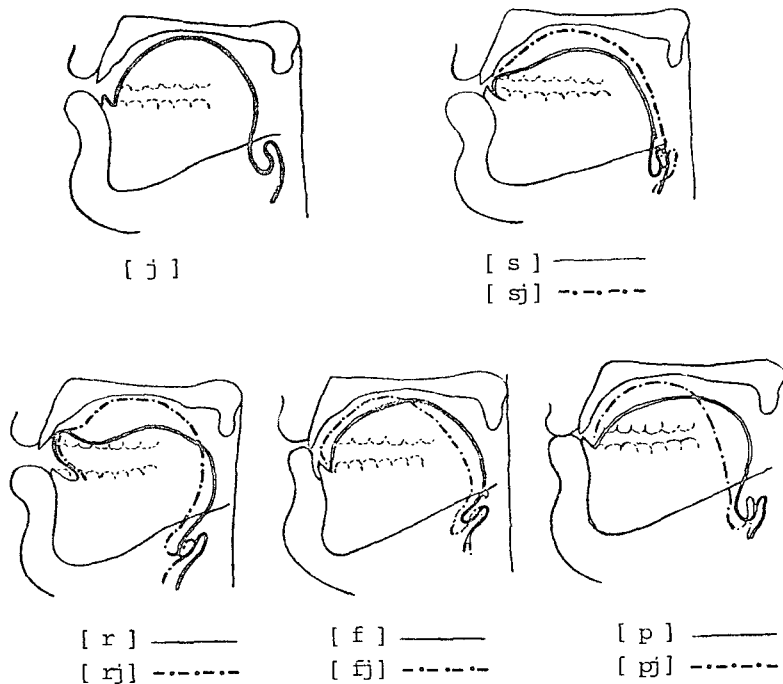
보기)	밭이 > 바치
	굳이 > 구지
	비너 > 비너 [pinj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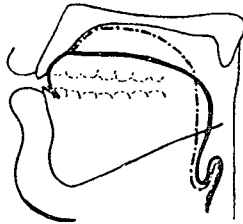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노어의 치조구개음  $\text{t}^{\text{h}}$ ,  $\text{d}^{\text{h}}$ ,  $\text{t}^{\text{h}}$  을 비교적 쉽게 발음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 밖에 치조음이 아닌 구개음화된(연음화된) 발음은 역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런데 이들 [tj], [tj], [tj], [tj], [tj], [tj], [tj], [tj], [tj] 의 발음에서 부딪치는 첫번째 어려움은 우리가 이러한 자음들의 존재를 음소로 더 나아가서는 음성으로써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사실상 치조음 이외의 자음들에서는 연자음과 경자음들의 조음점의 위치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으로 해서 음성적인 차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미세하게 느껴지는 음색의 차이로 러시아 사람들도 낱말의 뜻까지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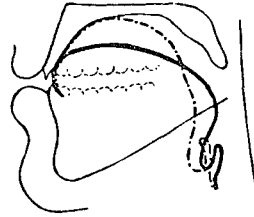
3. 노 어 연 자 음 들 이 공 통 적 으 로 갖 는 특 색 은 반 모 음 /j/ 의 음 색 이 섞 어 있 는 것 이 다 . 따 라 서 이 들 을 발 음 할 때 도 반 모 음 /j/ 를 낼 때 의 혀 의 모 습 을 동 시 에 갖 게 된 다 . 즉 경 자 음 을 낼 때 와 같 은 조 음 위 치 를 갖 되 앞 혀 만 선 입 천 장 쪽 으 로 당 겨 올 려 발 음 한 다 (그 림 1 참 조).

그 림 1. /j/ 와 경 자 음 및 연 자 음 의 조 음 위 치  
(R.I. Avanesof 의 *Russkoe literaturnoe proiznoshenie* 에 서)





[ t ] \_\_\_\_\_  
[ tʰ ] - - - - -



[ n ] \_\_\_\_\_  
[ nʰ ] - - - - -

한국인이 이 연자음의 발음을 익힐 때에는 우리말의 ㅌ, ㅊ, ㅍ, ㅍ를 붙여서 연습하여 연자음 특유의 음색을 익힌다음에 뒤의 모음을 떼고 발음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연자음의 발음에서 특히 어말의 연자음을 발음할 때에 우리말의 구개음화 현상으로, 모음 [i]를 연이어서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모음을 제외하고 순수한 연자음만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보기 *bratj* "잡다" → *bratji*).

#### 4. 유성 자음 과 무성 자음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의 구별도 어려움을 준다. 노어의 장애음들( *obstments* )은 다음의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성대진동의 유무에 따라서 별개의 음소로 구별된다.

보기	<i>bjit</i> "베리다"	<i>bj</i> "전쟁"
	<i>pitj</i> "마시다"	<i>pj</i> "노래하다"
	<i>dom</i> "집"	<i>djenj</i> "날, 낮"
	<i>tom</i> "권(책)"	<i>tjenj</i> "그늘"
	<i>gosjɕj</i> "손님"	
	<i>kosjɕj</i> "뻬"	

zar	"별"
far	"공"
sloj	"층"
zloj	"악한"
von	"저기"
fon	"배경"

우리말에도 파열음 계열인 *ㅂ, ㅌ, ㄱ* 에서 유성, 무성역 있으나 이것 역시 음성의 차원에서 나타날 뿐이다. 가령 우리말의 파열음 중에서 평음 *ㅂ, ㅌ, ㄱ* 는 무성음 /*p, t, k*/ 로 음소 체계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이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화 한다.

보기) 감기	[ <u>kamgi</u> ]
뽕비다	[ <u>pumbida</u> ]
다달이	[ <u>tadari</u> ]

음소 체계에서 노어는 경음과 연음 계열이 유성, 무성의 이중의 대립을 한국어는 평음, 기음, 경음의 삼중의 대립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 사람의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보자.

우리말에서는 유성파열음이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gorod "도시" boj "전쟁" dom "집"등을 발음할 때, korod, tom poj 와 같이 어두에서 무의식적으로 무성 자음을 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류는 두 언어의 음소 체계의 차이 및 음성적 특징을 알지 못하면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므로, 흔히 지나치기 쉬운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이 짧은 영어나 다른 언어를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노어의 무성 파열음 *p, t, k* 는 한국어의 무성파열음 중에서 평음 보다는 격음인 *ㅍ, ㅌ, ㄱ* 에 가까운 소리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노어의 파열음은 대체로 한국어의 평음 *ㅂ, ㅌ, ㄱ* 소리보다 긴장된 소리가기 때문이다.

## 한국어와 노어의 파열음 체계 비교

우 리 말			노 어		
평음	기음	격음	무성	유성	
p	p <sup>h</sup>	p <sup>p</sup>	경음 p	b	
			연음 p̃	b̃	
t	t <sup>h</sup>	t <sup>t</sup>	경음 t	d	
			연음 t̃	d̃	
k	k <sup>h</sup>	k <sup>k</sup>	경음 k	g	

## 5. 그 밖의 자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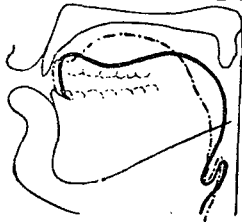
끝으로 기라 문제되는 자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마찰음 /z/

노어의 [z]는 순수한 치조 유성마찰음이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조음점과 조음방법이 다른 [ʒ]/[dʒ]로 내는 일이 많다. [z]는 무성 치조 마찰음 [s]에 대응하는 유성음이므로 [s]를 발음하되 성대를 떨며 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 2) 마찰음 /ʃ/, /ʒ/

이 두 자음은 우리말의 "ㅅ"나 영어의 pleasure, vision 등에서 나는 자음에 가까운 소리들이다. 그러나 노어의 자음들이 더 후퇴한 소리이다. 혀끝은 곡어나 영어에서와는 달리 약간 말아 올려서 치조에 가까이 하고 동시에 뒤혀는 연구개에 가까이 올린다. 이 때에 혀 중간은 아래로 쳐져서 "말안장"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ʃ] [ʒ] ———

[ʃj] [ʒj] - - - -

이렇게 노어의 [ʃ], [ʒ]의 발음에는 혀의 앞쪽과 뒤쪽의 두 군데에서 마찰이 이루어진다. 앞쪽에서는 치조 마찰음, 뒤쪽에서는 연구개 마찰음의 [x]가 남으므로 해서 노어 특유의 [ʃ], [ʒ]의 음색이 얻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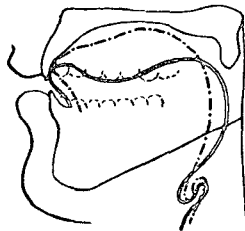
3) 혀엿소리 /l/

노어의 l은 대단히 어두운 음색을(dark l) 갖고 있다. 이것은 앞의 모음에 까지 영향을 주어 조음점을 후퇴시킨다. 가령 강세음절에서 나는 a 모음은 후속하는 /l/의 영향으로 음가가 후퇴하여 기본모음 5번으로 난다.

보기) da "네 그렇다"

dal "주었다"

노어의 /l/ 자음을 발음하려면 혀끝을 잇니에 대고 뒤혀는 연구개에 가까이 한다. 이때 혀 중간은 아래로 처진다.



[ l ] —————

[ lʲ ] ······

우리말에는 이같은 "어두운" [l]이 쓰이지 않는다. "이불" "구들" 등에서는 (retroflex) [ɭ], 즉 권설음이 쓰이며, "달력" "굴러" 등에서는 입천장 소리로 노어의 연음 l'과 가까운 소리가 된다.

끝 맺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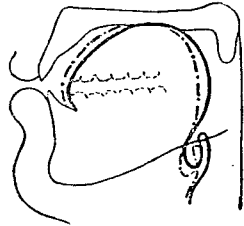
지금까지 노어 자음 체계의 특징과 그 각각의 발음에서 우리가 파악

하지 못하거나 또는 파악하더라도 발음하기 어려운 음성들을 다루어 보았다. 노어는 한국사람들에게는 발음하기 쉬운 언어로 생각할 수가 있다. 필자는 여기에 의견을 달리 한다. 적어도 자음의 경우 그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는 연자음 계열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로 쓰는 식별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 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노어와는 달리 영어에는 현저한 구개음화 현상이 없으며, 무성 파열음의 경우 강한 기음(aspiration)이 수반되고 [r]에 있어서는 연손성이 있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note 1.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노어의 자음음소들은 치음 [ts] 치조음 [tʃ]의 파찰음과 연구개음 [k] [g] [x]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음과 연음의 계열로 대립한다. [ts]에는 대립하는 연자음이 없으며 [tʃ]에는 대립하는 경자음이 없으며, [k g x]는 또한 경자음만으로 음소학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k g x]는 파생어를 만드는 경우 [k] -- [tʃsʃ], [g] -- [ʒ], [x] -- [ʃ]의 구개음과의 대립을 보이며 음소차원의 변화를 입는다.

보기) djeneg	"돈"	—	djenjeɜnɛj	"돈의"
jazɛk	"말혀"	—	jazɛtʃsɛnɛj	"말혀"
grex	"죄"	—	greʃitʃi	"죄짓다"

이들 자음의 공통점을 굳이 밝혀 본다면 딱 자음에 비하여 경음과 연음의 조음 위치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므로 해서 음색의 차이가 적기 때문이다.



[k] —————  
[kj] - - - - -



note 2. 노어의 연자음의 식별에 보충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인접한 모음에 변화를 들 수 있다. 연자음 앞의 모음은 음색의 변화를 입는다. 예를 들면 모음 /e/는 보통 기본 모음 2 번에서 다소 후퇴한 위치에 서 나나 연자음이 후속하는 경우에는 기본모음 2번으로 난다.

보 기 ) mésto "장소"               : méste "장소에서"  
           éto "이 것"               : étji "이 것들"

<참 고 문 헌 >

이 현 복. 국 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서울, 1981.

허 용 . 국 어 음운학. 정음사, 서울, 1970.

Avanesov, R.I. Russkoe Literaturnoe Proisnoshenie.  
 1972.

< 서울대학교 노어 강사 >